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4.12.(제 14호)

##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통해 본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강희영·강은애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관련 분야 재단 연구 실적]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 발전 방안 연구(2024)

서울시 가족 성평등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2023)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2020)

가사노동은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노동’(invisible labor) 혹은 ‘그림자 노동’(shadow labor)으로 간주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왔다. 이는 가사노동이 생산활동으로 분류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동일한 내용의 임금노동 저평가로도 이어진다(Daniels, 1987; Budlender, 2008). 특히, 이러한 비판은 국가 경제와 사회 복지에서 가사노동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와 공식적인 인정은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정책 수립에 중요한 과제이다(UN, 1993; Folbre, 2006). 이에 국제기구는 경제활동의 범위를 가사노동까지 확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OECD, 2000). 소득통계(GDP)가 제외하고 있는 가구 내 가사 및 개인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즉 가정관리나 돌봄 등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GDP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가사노동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문숙재 외, 2001; 김종숙 외, 2005; 권태희, 2006; 박현정 외, 2013),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평가는 2018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을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통계청은 5년 주기 가계생산 위성계정 공표로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 지표에서 배제되었던 무급 가사노동을 경제적 가치로 측정하여 그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인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평가의 틀을 제시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리뷰에서는 2019년 조사에 기초하여 2021년 공표된 가계생산 위성계정 자료를 바탕으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구성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기혼 비취업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추정하였다.

### □ 가계생산 위성계정: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국가 공식 통계

- ▶ 작성주기 및 공표주기: 5년
  - ▶ 기준시점: ‘생활시간조사’ 기준년도(4, 9차년)의 1월 1일~12월 31일
  - ▶ 공표시기: ‘생활시간조사’ 공표 후 익년도
- ※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은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 통합하기 어려운 분야를 측정하는 부속 계정임.

※ 표기된 자릿수 이하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반올림 오차 발생. 비율 계산 시 합계가 100이 아닐 수 있음.

##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측정

### ○ 가계생산 위성계정의 구성 요소

- 가계생산 위성계정 총산출은 무급 가사노동 가치와 고정자본 소모를 합한 가계생산에 중간소비를 합하여 산출함.

[표 1] 가계생산 위성계정 측정을 위한 항목 및 기초자료

추계 시 사용 항목		기초자료	생산 부처	공표 주기
가계생산	무급 가사노동 가치	생활시간조사 장래인구추계/인구총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 통계청 고용노동부	5년 5년/1년 1년
	고정자본 소모	가계소비지출액	통계청	분기
중간소비		가계생산 대상 총가구 수	통계청	5년

출처: 통계청(2018),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보도자료, 2018.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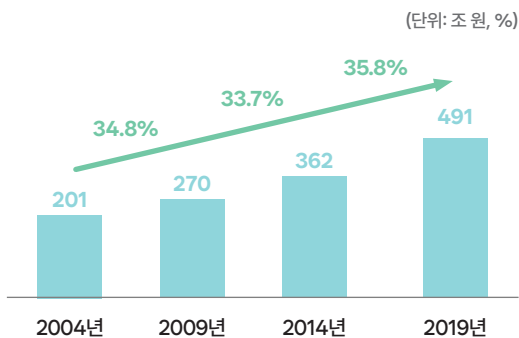
### ○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 무급 가사노동의 범위와 산정 방식

- 무급 가사노동은 '비시장 생산'으로 자가소비를 위한 가계 내 가사 및 개인 서비스, 즉 요리, 청소, 빨래, 돌봄 등을 포함하며, 다른 가구나 개인에 대한 비공식적인 도움과 자원봉사, 그리고 돌봄이나 가사활동을 위한 이동을 포함함.
-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가사노동 투입시간에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직종별 대체임금을 곱하여 산정함.  
※ 우리나라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 무급 가사노동 가치 산정은 UN의 작성 지침에 준거하여, 투입물 접근법의 시장대체비용법(전문가대체법)으로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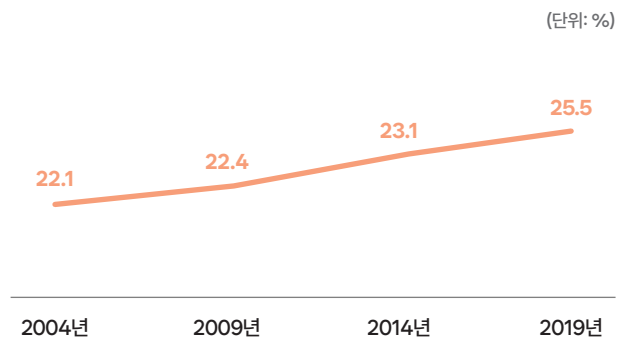
##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 ○ 2019년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491조 원이며, 명목 GDP 대비 25.5% 차지

- 2004년 약 201조 원이었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2019년 약 491조 원으로 2.4배 이상 상승함.
- 명목 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2004년 22.1%에서 2019년 25.5%로 높아짐. 명목 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 가치 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GDP 상승폭보다 무급 가사노동 가치의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임.  
※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가사노동의 시장 가치 상승,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함.  
※ 2019년 명목 GDP는 2004년보다 2.11배 상승함.



[그림 1] 무급 가사노동 가치 증가 추이



[그림 2] 명목 GDP 대비 무급 가사노동 가치 비율

출처: 통계청(2021),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 재구성

##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통해 본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 ○ 가사노동 행동분류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 행동분류에 따라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가정관리 66.6%(327조 원),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22.1%(109조 원), 자원봉사 및 참여활동 1.2%(6조 원), 이동이 10.1%(50조 원)를 차지함.
- 무급 가사노동 가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정관리의 세부 분포를 살펴보면, 음식준비가 3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청소 및 정리가 14.0%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가정관리의 구성비는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는 감소 추세를 보임. 이는 가구원 수 감소, 돌봄의 사회화 등으로 인해 가구 내 돌봄 시간이 줄어든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시간은 2004년 36.5분, 2009년 34.5분, 2014년 31.0분, 2019년 25.0분으로 조금씩 감소함.  
(각 년도의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시간은 20세 이상 기준. 2019년만 15세 이상 기준(통계청, 각 년도, '생활시간조사'))

표 2 | 가사노동 행동분류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

구분	(단위: 조 원, %)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무급 가사노동	201 (100.0)	270 (100.0)	362 (100.0)	491 (100.0)
- 가정관리	120 (59.6)	166 (61.5)	227 (62.7)	327 (66.6)
-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58 (28.9)	74 (27.5)	95 (26.3)	109 (22.1)
- 자원봉사 및 참여활동	2 (1.1)	2 (0.8)	5 (1.4)	6 (1.2)
- 이동(가정관리, 돌보기)	21 (10.4)	27 (10.1)	35 (9.6)	50 (10.1)

출처: 통계청(2021),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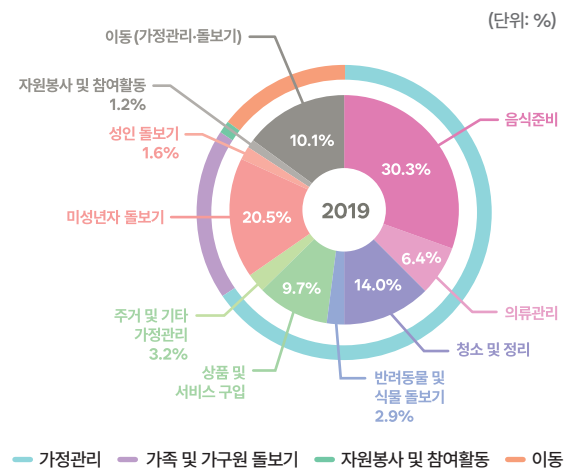


그림 3 | 행동분류별 무급 가사노동가치 구성(2019년)

### ○ 연령대별, 가구원수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

- 2014년까지 30대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가 가장 컸으나 2019년 산정에서는 다소 감소하여 23.1%를 차지함. 반면 60세 이상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27.5%로 30대의 구성비를 초과함. 60세 이상과 함께 50대의 구성비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고령화, 30대 이하 인구의 감소를 반영함(통계청,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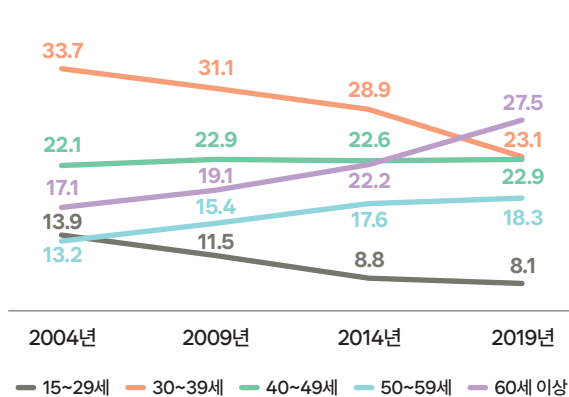


그림 4 | 연령대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

출처: 통계청(2021),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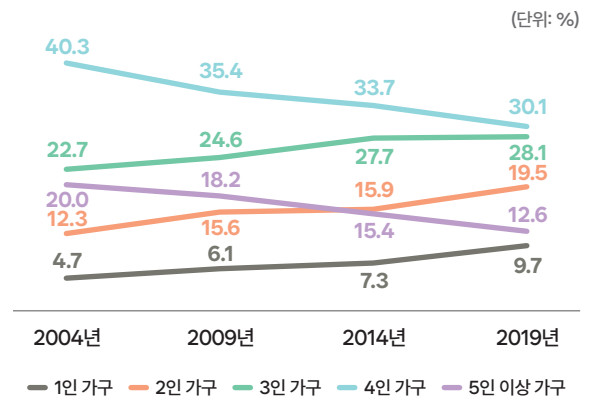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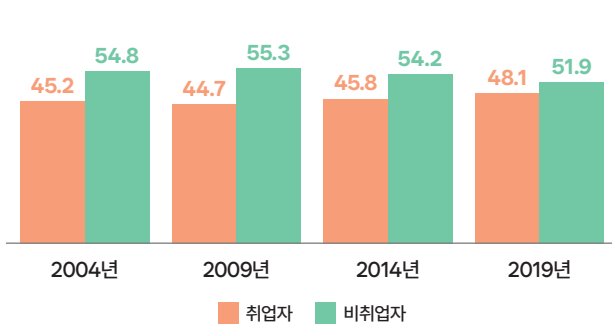
그림 5 | 가구원수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

##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통해 본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 가구원수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의 변화는 소규모 가구 증가를 반영하고 있음. 4인 가구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가 2019년 기준 30.1%로 가장 크지만 감소 추세이며, 5인 이상 가구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 역시 감소하고 있음. 반면, 1인~3인 가구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는 증가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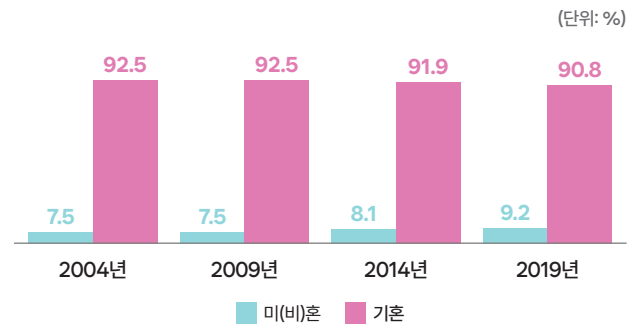
### ○ 취업 여부별, 혼인 상태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

- 2019년 비취업자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는 51.9%로 취업자(48.1%)보다 높지만,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음.
  - 비취업자의 구성비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를 보임. 이는 2009년 이후 맞벌이 가구 비율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혼인 한 적이 있는(기혼) 국민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는 2019년 기준 90.8%로 무급 가사노동 가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009년 이후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비혼 인구 증가에 따라 결혼하지 않은 국민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 비혼 인구는 1인가구의 증가와 관련 있음. 1인가구 비율은 2004년 20.0%, 2019년에는 30.2%로 증가함.



[그림 6] 취업 여부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

출처: 통계청(2021),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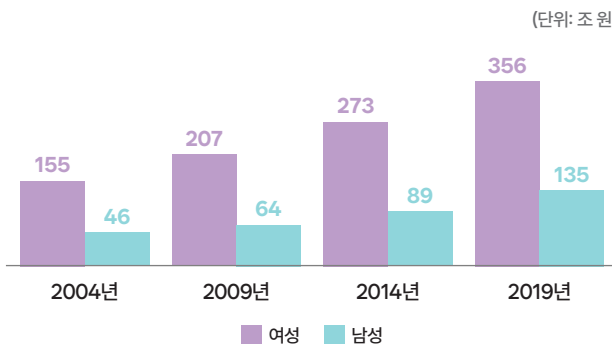


[그림 7] 혼인 상태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

## 여성과 남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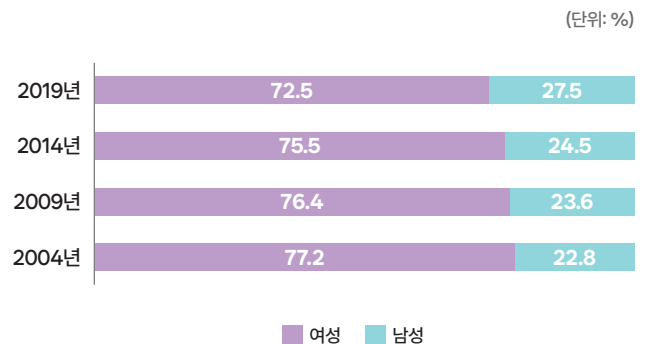
### ○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356조 원으로 전체의 72.5% 차지(2019년 기준)

- 2019년 기준, 전체 무급 가사노동 가치 491조 원 중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356조 원으로 72.5%를 차지함. 2004년 약 155조 원에서 2019년 356조 원으로 상승하였으며, 구성비는 4.7%p 감소함.



[그림 8] 성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출처: 통계청(2021),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및 해당 자료 재구성



[그림 9] 성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

## 가계생산 위성계정을 통해 본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 남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2019년 기준 135조 원으로 전체의 27.5%임. 2004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증가폭은 크지 않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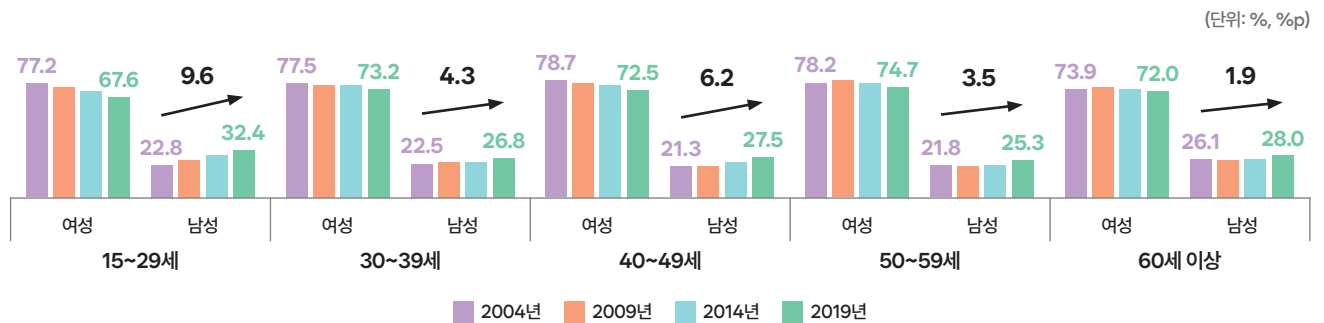
※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2004년 45분, 2009년 49분, 2014년 53분, 2019년 64분으로 측정됨.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2004년 226분, 2009년 223분, 2014년 214분, 2019년 205분으로 다소 감소함(통계청, 2021).

### ○ 성별×연령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 변화

- 60대 이상에서 무급 가사노동 가치가 증가(그림4 참조)하고 있으나 성별에 따른 연령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성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현상이 관찰됨. 2004년 60대 이상 무급 가사노동 가치 중 남성의 비율\*은 26.1%를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28.0%로 15년간 1.9%p 증가에 그침.

\* 연령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중 해당 성별이 차지하는 비율

- 반면, 15~29세 남성의 경우, 2004년 22.8%에서 2019년 32.4%로 15년 동안 9.6%p 증가함. 이 연령대는 남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비율이 유일하게 30%를 넘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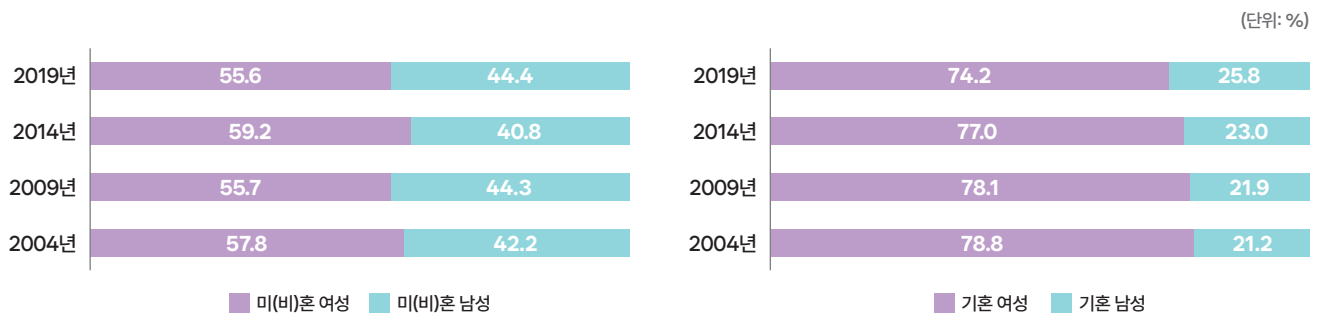
|그림 10| 성별×연령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 변화

출처: 통계청(2021),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 재구성

### ○ 성별×혼인 상태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

- 미(비)혼인 국민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중 여성의 구성비는 2019년 기준 55.6%, 남성의 구성비는 44.4%이며, 이는 2004년과 비교해 각각 2.2%p 증감한 수치임.

- 반면, 2019년 기혼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비는 74.2%로 2004년과 비교해 4.6%p 감소함. 이는 미(비)혼 남성과 비교해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그림11| 성별×혼인 상태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미/비혼)

|그림12| 성별×혼인 상태별 무급 가사노동 가치 구성(기혼)

출처: 통계청(2021),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에서 재구성

○ 여성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남성의 2.6배(2019년)

- 2019년 15세 이상 인구 기준,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949만 원으로 산정됨.
-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 1,380만 원, 남성 521만 원으로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남성의 2.6배임.
- ※ 여성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2004년에는 남성의 3.4배, 2009년 3.3배, 2014년 3.1배임.

| 표 3 | 1인당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

(단위: 만 원, %)

구분	평가액				증감률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2009년	2014년	2019년
전체	417	548	712	949	31.5	29.9	33.3
여자	649	842	1,079	1,380	29.9	28.1	27.9
남자	189	257	348	521	36.1	35.4	49.6

출처: 통계청(2021), '2019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

기혼 비취업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 2019년 기혼 비취업 여성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 추정<sup>1)</sup>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혼인 여부와 취업 여부를 성별로 분리하여 '기혼 비취업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을 산정한 후, 기혼 비취업 여성의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추정함.
- 두 가지 방식으로 기혼 비취업 여성의 1인당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산정한 결과 2,837만 원(추정 방안1)과 2,843만 원(추정 방안2)으로 추정됨.

**추정 방안 1** 무급 가사노동의 시간당 평가액(11,209원) × 가사노동 시간(7.03시간)\* × 30일 × 12월 = 2,837만 원

※ 무급 가사노동의 시간당 평가액:

1인당 여성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1,380만 원) ÷ 2019년 15세 이상 여성의 요일평균 가사노동 시간(3.42시간) ÷ 30일 ÷ 12월 = 11,209원

**추정 방안 2** 여성 1인당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1,380만 원) × 2.06 = 2,843만 원

※ 2.06: 2019년 기혼 비취업 여성의 요일평균 가사노동 시간(7.03시간)\* ÷ 2019년 15세 이상 여성의 요일평균 가사노동 시간(3.42시간)

\* '기혼 비취업 여성의 요일평균 가사노동 시간' 출처: 201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외벌이(남편) 아내'의 요일평균 가사노동 시간

○ 시사점

- 현재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시장대체비용법(전문가대체법)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취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그만큼 희생하고 있다는 기회비용법으로 산출할 경우 추정치는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음<sup>2)</sup>. 또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발표치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2024년의 현황이 반영될 경우에도 현재 제시된 가치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큼.
- 본 리뷰에서 검토한 무급 가사노동 가치는 경제 성장 및 복지정책 수립 등의 목적에서 작성된 가공통계임. 현재 한국의 GDP는 화폐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만을 측정 대상으로 하여 가사노동을 비롯한 자원봉사, 시민참여 등 사회를 유지하고 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을 포괄하지 못함.

1) 통계청에서는 시간당 가사노동 가치를 발표하지 않아 가사노동 가치 계산 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여 제시함. 2021년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 공표 후 관련 기사에서 한 언론이 2019년 시간당 가사노동 가치를 13,891원으로 언급한 바 있으나, 공식 발표된 가치가 아니며, 추정 가치임. 추정 방식은 제시하지 않음. 관련 기사는 다음을 참조할 것.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0204.htm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0204.html))(2024.11.11.인출)

2) 참고로 2019년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은 491조 원(시장대체비용법(전문가대체법))이나 이를 기회비용법으로 산출할 경우 약 35.6% 높은 666조 원으로 평가됨(통계청, 2021).

- 현실에서 가사 노동의 가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장은 전업주부가 타인의 과실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임. 정부는 전업주부의 자동차사고 부상 입원 등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 인정 가능성을 안내하고 있으며,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업주부의 가동연한(기대 수입이 인정되는 노동 연령의 한도)을 만 65세로 상향하는 판례를 낸. 그러나 가정생활이 계속 유지되는 한 만 65세를 넘어서 사망할 때까지 가사노동이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간과되고 있음. 더구나 리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60세 이상 국민의 가계생산 기여 정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또한 동일한 사고 판단의 국면에서 전업주부가 아닌 경우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고려는 진척되고 있지 못함(백경희·김자영, 2022). 즉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와 여타 가족 구성원이 가사노동에 동참하는 경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포괄하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때, 가사노동의 실질적 가치가 보다 구체적으로 체감될 수 있을 것임.

### 참고자료

- 권태희, 2006, '여성 무급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 한국여성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문숙재·성지미·정영금·윤소영, 2001, 「무보수 가사노동 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연구」, 여성부.
- 박현정·홍현정·허경옥, 2013, '가정생산 위성계정의 개발 및 적용: 새로운 개념 정립과 표준화된 측정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권 2호, 55~74쪽.
- 백경희·김자영, 2022. '가사노동에 대한 법적 평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이화젠더법학』, 14권 1호, 295~329쪽.
- 김중숙·이미정·김태홍·권태희·박순철, 2005, 「여성 무급 가사노동의 실태와 가치평가, 가계생산의 국민소득계정 통합을 위한 보고서」, 여성가족부.
- 통계청, 2018.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 보도자료(2018.10.8).
- 통계청, 2019, '생활시간조사'.
- 통계청, 2021. '2019 가계생산 위성계정(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 보도자료(2021.6.21.).
- Budlender, Debbie. 2008, The Statistical Evidence on Care and Non-Care Work across Six Countries, *Gender and Development Programme Paper*, No. 4.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
- Daniels, Arlene Kaplan. 1987, "Invisible Work." *Social Problems*, 34 (5), 403-415.
- Folbre, Nancy. 2006, "Measuring Care: Gender, Empowerment, and the Care Econom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7 (2): 183-199.
- OECD National Accounts, 2000, *Household production in OECD Countries: data sources and measurement methods*, National Accounts Publications.
- United Nations, 1993.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United Nations.